

전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순위 12위

금메달 45·은 21·동 32개 획득 역대 최고 성적 대회 마감... 임준범, 육상 한국신기록 포함 3관왕 차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금메달 45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32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1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 전국체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육상에서 한국신기록을 포함 3관왕을 차지한 임준범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전북의 자존심을 세웠다.

전년도 대회에서 3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쳐 자존심을 구졌던 전북 선수단은 올해 대회를 위해 주요종목들에 전문지도자를 배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선수들의 분전과 전문지도자를 배치한 관심, 사이클, 육상, 볼링, 역도 등이 좋은 성적을 올리며 전북의 성적향상을 견인했다.

전국체전에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등장에 한국신기록을 세운 육상의 임준범 선수를 비롯해 육상의 김정호, 박정규, 윤한진, 전민재, 전은배 선수, 역도의 조영철 선수, 수영의 최은지 선수가 출전 종목에서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임준범 선수는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대회 신인상에 뽑혀 기쁨을 더했다.

또한 육상의 문지경, 선정미, 이민재, 권상현, 배상현 선수와 볼링의 송영희 선수 역시 본인 출전 종목에서 2관왕에 올랐다. 선수단은 신기록들도 쏟아냈다.

21일 남자800m에 출전한 권상현 선수가 2:25.73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남자 원반던지기과 포환던지기에 출전한 이민재 선수가 원반 19.92m, 포환 07.32m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어 남자 5,000m에 출전한 임준범 선수가 18:35.33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으며 남자 10km 마라톤의 권상현 선수 역시 40:46.00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만들었다.

단체전 종목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남자 좌식배구팀과 축구팀 청각 뇌성팀이 각각 3위와 4위, 5위에 오르며 구기종목 고득점을 획득했고 신인선수들로 출전한 휠체어펜싱팀 역시 1,700점을 전북도에 선사했다.

지난 대회에서 크게 부진한 볼볼 역시 부진을 깨끗이 씻어내고 많은 점수를 얻어냈다.

선수단의 분전과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설립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나 앞으로 가야할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전국체전에서는 이미 10위권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며 새로운 체육 강도로 떠올랐지만 장애인 전국체전은 10위권 진입이 현재의 지원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선수들과 장애인 선수들의 보조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임준범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했다.

맞추기 위해 훈련여건 개선 전문지도자 충원, 훈련장비 및 용품지원, 신인선수발굴과 육성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관왕이 많은 전북도의 특성상 우수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드림필드 학교 방문

전북현대모터스측구단(단장 이철근)이 얼마 남지 않은 2016시즌을 앞두고 팬들에게 다가서는 행보를 이어갔다.

전북은 전주시에 중학생 팬들과 아마추어 축구 자선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전북현대모터스 드림필드 리그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드림필드리그는 16개 학교 출전으로 4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18일 4강 진출팀을 가렸다. 4강 진출 팀에게는 전북현대 선수들의 축구 지도 혜택이 있으며 오늘 28일 그 약속을 지켰다.

전북의 원클럽팬 최철수를 비롯해 정형, 신형민, 이종호 등 8명의 선수들은 4강에 진출한 전주동중, 서전중, 용흥중과 우전중을 방문해 축구 클리닉과 사인회 등 팬 서비스 활동을 하며 전북의 축구 팬들을 만났다.

전북은 앞으로도 지역 연구 구단으로서 미래의 축구 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드림필드리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평가회·시상식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일원에서 열린 '2016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의 평가회 및 시상식을 280여명의 종목별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종목별 시상에는 11개종목 14개 부문에 입상팀에 대한 시상 진행되었으며 8개 종목 심판장과 함께 대회 개최자인 입실군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앞으로도 동호인 리그에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운영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NC, 첫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

김경문 감독 "두산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NC 다이노스가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NC는 지난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선발 에릭 해커의 호투와 에릭 테임즈, 박석민, 김성우의 홈런포를 앞세워 8:3으로 승리했다.

LG의 추격을 따돌린 NC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왕좌 탈환을 노린다. 동시에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NC는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3차전까지 시리즈 전적 2:1로 앞서며 한국시리즈 진출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4차전에서 더스틴 니퍼트, 장원준 이현승을 앞세운 두산의 막강 투수진에 막히면서 분위기를 잃었다.

NC 김경문 감독은 "한국시리즈에 올라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구 패하니까 축제가 상처가 되더라. 지난해 두산에게 한 번 진 적이 있다. 선수들 스태프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두산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C의 현재 분위기는 최상이다. LG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두 차례나 역전승을 거두면서 자신감도 충만하다.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올라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에릭 해커재크 스튜어트 원투펀치가 견제하고, 승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학이 문제 없이 돌아온다면 선발진의 힘은 배가 될 것이다.

에이스 해커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 등판한 후 3일만 쉬고 다시 4차전에 선발로 등판을 자청할 정도로 투지를 보여 팀의 사기를 높였다.

무엇보다 NC의 '나테야' 타선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타격감을 찾았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나성범은 아직 타격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테임즈와 박석민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결정적인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나성범만 살아남는다면 연쇄적인 폭발이 가능한 타선이 중심타선이다.

준플레이오프를 4차전에서 끝내면서 사



지난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 포스트시즌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 9회말 NC 선수들이 8:3으로 승리를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흘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호재다. 오히려 포스트시즌을 통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셈이다.

원종현과 이민호 등 주축 볼펜진은 플레이오프에서 연투를 했다. 지친 볼펜진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김 감독은 "볼펜진이 다소 피곤할 것 같

다. 야수로 나간 선수들도 피곤할 것 같으니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올해 두산과의 상대전적은 7승패로 NC가 밀린다.

한국시리즈 1차전은 29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개최된다.

/김민근기자

장수군청 여자탁구단 창단식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26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장수군수(최용득), 장수군의원과 체육계 인사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단식을 가졌다.



선수단은 익산 이일여자고등학교 탁구팀 코치로 활동해온 문보성 지도자를 사령탑으로 코치 겸 선수인 김별, 서민정, 서다인, 한미정, 장해진 선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장수군은 탁구선수단 창단을 위해 2015년부터 종목 선정과 예산 확보, 운영 조례 제정 등 선수단 창단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청 탁구단은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재능기부를 통한 탁구 저변확대로 장수군 체육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